



임무영 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

LOVE LETTER

“밥상 공동체”

지난 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주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도리어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정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는 느끼시나요?” “저요! 글썄요. 아마도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저녁 먹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5월달이 되면 가족창 경연대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당시 담임목사 가정을 자동 출전하는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 도와주느라 진정 우리 가족 가족창 경연대회 연습은 토요일 저녁에 한 두번 불러보는 것으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가족창이 나오겠습니까? 토요일 저녁 식구들이 모여서 어떤 찬양할까? 아버지께서 물으시면 이 노래는 이래서 힘들고 저 노래는 저래서 힘들고...찬람을 곡선정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이다 결국 매년 거의 같은 찬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사철에 불 바람 불어있고(찬 559장)”입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참 그림고 그리운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집 낙원이라”

가족이란 누구일까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않을까요?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 어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좁은 의미가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 진정 가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 것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한다는 의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진정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누군가가 밥을 대접하거나, 누군가가 초대하게 되겠요? 그럼 밥을 얻어 먹은 사람이나 초대받은 사람은 그런 기회를 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고마운 마음이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밥상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문득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렇죠? 함께 밥 먹어도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식사하기 불편한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나와 함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함께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좋은 사람, 문제 일으킬 소지가 없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우리 만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유지하기 위해 담을 최대한 높이 쌓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 교회여서는 안됩니다. 밥상 공동체는 미묘한 감정들,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이 실타래가 풀리지듯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곳이 밥 먹는 자리요. 그곳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잠시 질문을 드렸던 집사님 이야기로 한번 가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는 자리야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설정하고 삶을 나누며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 나라 일까요? 코비드 핑계삼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하고는 담 쌓고 살지 마십시오. 밥 한끼면 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마음 쓰면 밥 한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함께 식사하세요. 밥상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인간적인 이야기로 도배되어지는 자리가 아닌 마틴 부버의 말처럼 “내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게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대화의 자리야말로 저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주저 마시고 초대하세요. 식당으로든 가정으로든 함께 밥상공동체로 만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의 가족과 식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브릿지교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Youth: 윤예원 전도사
유치부: 이은신 전도사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Tel: 260-602-9061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목사

사도신경.....**다같이**

여는찬양.....**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위경미 집사**

헌금찬송.....**다같이**

“사철에 봄 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559 장 / 통 305장)

헌금기도.....**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다같이**

교회소식.....**임무영 목사**

성경봉독.....**임무영 목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 P. 117)
(Revelation 3: 20)

설교.....**임무영 목사**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
“태초에 관계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is a relationship)

성찬식.....**다같이**

(분찬위원: 김현영, 김영철, 김진, 송호남)

설교후 찬양.....**다같이**

* “불찌어다”

축도.....**임무영 목사**

*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영:** 오늘 브릿지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 **공지사항**

- a. 친교(성도간 사랑의 식탁교제)재개:3-4월 친교는 사랑방별로 식사진행
(사랑방별 테이블 셋업)
- b. 예배시 마스크 착용은 우선 3월 한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 이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공지에정
- c. 3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입구 비치)
- d.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Bank)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e. Daylight Saving Time 시작: 3/13(주일) 2am→3am

3. **예배및 훈련**

- a. 토요새벽예배 (로마서 강해 16): 3/12(토) 6am, 현장및 Zoom
- b. 1부예배(봉사자 예배): 10:30am / 소예배실
- c. 2022년도 전반기 말씀묵상 훈련 개근자 명단: 길하나 김경 김귀숙 김묘신 김성호
김영철 김정미 김현영 박재홍 박춘자 배정은 백송학 신수희 안희자 이복희 이은신
이재태 이종희 이혜린 정유진 정하영 조병소 조정자 조희선 표춘자 한엘리스
Grace Kim (총 27명)
- d. 브릿지 복음학교 1기 모집 (세례교육 포함)
-기간: 3/6(주일), 13(주일), 20(주일), 27(주일) 예배 후 (약 1시간소요예정)
-장소: 소예배실 / 대상: 복음을 알고 싶은 분, 복음을 다시한번 경험하고 싶은 분
-내용: 기독교 기초교리(간추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청: 임무영 담임목사 (260-602-9061 or Lmy99307083@gmail.com)

4. **모임 및 모집**

- a. 차세대팀: 유치부 교사 (문의: 이은신 전도사, 황은수)
- b. 부활절 칸타타 성가대 모집: 3/6(주일), 예배 후 분당 (문의: 이신숙)
- c. 확대운영위원 모임(운영위원 및 팀장): 3/12(토), 5:30pm / 박지웅 집사 가정
- d. 유치부 PTA 모임: 3/13(주일) 예배 후

5. **예배 및 봉사위원**

- a. 친교: 전성민 / 다음주: 이세형, 신수희, 안성민
- b. 다음 주 기도: 이미애
- c. 3월 안내및 헌금위원: 김묘신, 표춘자 (안내) / 신성호, 손유기 (헌금)

6. **기도제목**

- a.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위해
- b.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
- c. 환우 성도들을 위해
- d.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 e. 담임목사와 운영위원들을 위해
- f. John Oh 성도 (골수이식 / 문의: 송호남)

7. **지난 주 출석:** 어른(87), 다음세대(22)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소예배실	
주일예배 2부	12:00 pm	본 당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아부	12:00 pm	Nursery
	유치부	12:00 pm	Room 14
	유초등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